

겸손하고 성실한 건축사가 되자

Modest & Industrious Architect

金花子/종합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by Kim, Hwa-Ja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설계자가 되자.

돌이켜 보면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반세기 조금 못 미치는 2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처음 개업할 당시는 그냥 몇 모르고 희망과 꿈에 부풀어 고된 줄도 모른 채 설계비에 관계없이 일의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무쇠라도 금방 녹일 것 같은 자신과 패기를 가지고 설계실과 감리현장을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해 두해 아니 2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편한대로 타성에 젖어 버렸다고나 할까 복잡하고 머리 아픈일은 예시당초 손대고 싶지도 않고 좋은 조건하에서 말썽없이 편한 일만 가려서 하고 싶으니 세상이 변한 탓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변한 탓일까 자신마저 만족할 수 없는 설계도면을 대하면 왠지 서글프다 못해 차라리 무감각해 지고 싶은건 어인 까닭일까.

그 동안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대로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만족해 했던 건축주는 과연 몇이나 될까? 설계비 감리비는 청구한대로 한 푼 안깎고 다주면서도 이는 안면에 까다롭고 복잡한 일하느라 고생만 실컷 시켰는데, 설계비는 예상보다 너무 싸게 받는 건 아닐까 하며 조심스레 내 눈치 봐가며 직원 회식비 얼마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건축주는 과연 또 몇이나 있었을까?

납품시간에 쫓기어 평면도 따로 단면도 따로 앞뒤 치수 안맞는 설계도면 작성해 놓고도 현장에서 공사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고 도리어 큰소리로 호통치다 몇 마디 불평소리라도 들리면 공사 책임자 불러놓고는 바쁘게 일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설령 도면 앞뒤 안맞더라도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전에 설계 감리자에게 상의해서 공사할 것이지 널푼수 없이 끝이 끝대로 그것도 집이라고 짓고 있었냐며 당장 뜯어 고치라고 짐작게 나무래 놓고나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앞으로는 도면 좀 잘 그려주고 검토 잘해야겠구나고 반성해 보면서 내심 부끄럽고 민망해 본적이 과연 나만의 일이었을까?

허가 요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 몇 장 그려서 허가필하고 나면 시공할 수 있는 상세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서 현장에 보내야 하는게 당연한데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실시도면 추가 작성하기가 생각대로 용의치 못해 공사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앞뒤 안맞는 설계도면 몇 장 달랑 현장에 보내놓고도 설계 잘했다고 큰소리 치겠지. 소위 임자 잘 만나서 이웃이나 주변에서 그 흔한 진정 한번없이 아무런 하자없이 잘 마무리되어 준공이 되고 난 후 오가는 사람 한 둘 그런대로 집 잘지었다고 하면 푼수없는 설계자 마치 자기가 설계 잘 해서 좋은 작품이나 된줄 착각하고 하루 아침에 무슨 대가가 된듯 목에 힘주며 짐작게 품 제며 거들먹 거린적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고 싶다.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계도면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간단하고 적은 일이라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부분단면 한 장이라도 더 상세하게 그려 줄 수 있는 성의있는 설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정처분 기준 더이상 얽매이지 말자

협소한 대지위에 일조권이다, 대지안의 공지다, 건폐율이다 하며 법조항을 요리조리 캐 맞추어 계획하고 설계해서 대지 한복판에 뿔뿔이 소위 그림같은 집 한채 멋지게 지어놓고, 보기좋은 장식장이다, 옷장이다, 식탁이다 하며 무슨 외국 잡지 카타로그처럼 눈에 띄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진열한뒤 식구수대로 각자 자기 방으로 몸만 달랑 들어가서 손하나 까딱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은 우리네 살림살이가 그렇지 못해 먹고 살고하는데 뭐가 그리도 구질구질 많은지 눈에 안 뜨이는 살림살이가 눈에 뜨이는 것보다 열 보따리도 더 많으니 그림같은 멋진 집 준공검사 나기 무섭게 가데기다, 새시다 하며 온 사방을 불법무단 건축물로 뒤집어 씌우니 이상적인 설계나 작품은 간 곳이 없고 위법 건축물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할까.

준공검사후는 또 무슨 감사는 그렇게도 많은지 자체감사다, 구청감사다, 시청감사, 내무부감사, 건설부감사, 감사원감사 등등 일년 내내 감사 소리들으면 그 많은 건물들 중에 행여 내가 설계 감리한

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서슬 퍼런 감사관앞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거나 않은지 마냥 초조하고 조바심 내야하는 현실에서 탈퇴하고 싶은 건 나만의 심정일까?

사람이 살다보면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감사대상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하게도 설계에서부터 허가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뭔가 찝찝하고 매끄럽지 못한 일은 준공검사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감리한다고 신경써서 다른 현장보다 더 자주 가보고 앞뒤 자로 열 번도 더 재보고 검토하고 또 개운치 못해 망설이다 설마요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준공검사 도장 딱 찍어 주고나면 그날부터 무슨 감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내려 앉으며 죄지은 학생마냥 금방이라도 불려가 꾸중 들을 것만 같아 조바심 내며 불안한건 또 어인 까닭일까? 허구많은 여러 수백건수 중에 잘된 것은 한건도 안 걸리고 하필이면 처음부터 찝찝하던 건수는 정말 쪽집게 도사같이 위반부분을 잘도 찾아내서는 구구절절한 참으로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전후 사정일랑 알 바 없고 순전히 감리 잘못된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혀 결국은 자인서를 쓴다.

무슨 청문을 한다는 등 법석을 떨다 몇 개월 행정처분이라도 받고 나면 자기 잘못은 고사하고 웬지 나만 운수사납게 속죄양이된 기분이 되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 설계고 감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누적된다고나 할까? 재판서류 미비하게 만들었다고, 변론 잘못해서 재판에 졌다고 행정처분 받은 변호사를 본적이 없고, 몸살 감기약 몇 일부 지어주고 제때 만나았다고 영업정지 당한 의사, 약사였는데 우린 왜 걸렸하면 내집 짓는 정성으로 남의 집 설계해주고 이왕이면 멋지게 잘짓고 편리하게 잘살아라고 부지런히 감리하며, 조언하고 충고하고 지도편달했건만 무슨 팔자 소관인지 감사하면 건축을 빼 놓을 수 없고 준공했다하면 설계도대로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위반 건축물만 도사리고 있으니 설계 감리자의 입장에서선 그저 가슴만 답답할뿐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과연 건축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건축사법 또한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보다 좋은 환경속에 보다 우수한 건물을 짓고 선의의 건축주를 보호하며 건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해 놓은 기준법이 자칫 잘못하여 소위 재수(?)없이 걸리면 영락없이 설계감리자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육도 방망이로 변하니 그 두꺼운 법규책에다 보통때는 대수롭잖게 여겨 눈길 한번 쥐 본적이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깨알같은 몇 줄 아니 몇 자 위반하였다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행정처분 기준에 얽매여 안절부절 해야하는 것일까?

기억력은 자꾸만 희미해져가는데 법규책은 옛날 목침보다 더 두꺼워져서 한 손으로는 펴보기조차 힘든 지경이니 왜 우린 이렇게 많은 규범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건축법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흔히 선량하고 착한 사람, 예의 범절있는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육법전서 다 외우고 털끝만큼도 위법을 안하고 사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꼭 우리 건축만 유독 법의 테두리 속에 얽매여 움추려 들대로 들어있는건 아닌지, 그 두꺼운 법규책 들여다 보며 깨알같은 많은 규범과 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보다 좋은 작품다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생활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시대가 변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세대차를 느낀다고나 할까?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우리의 주거 생활속에서 그래도 아직은 익숙지 못해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수납 창고나 계절에 따라 교체해야 할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네 주택 문화는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큰방, 거실, 방 등은 한 자라도 더 크게 하고 싶으면서 주방이나 다용도실 등은 채광도 통풍도 안 되는 한 쪽 귀퉁이에 한 치의 여유도 없어 쌀자루, 양파자루 들고 뱅뱅 돌아야 하고 라면박스, 사과계좌 하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면서 무슨

안방이다, 침실이다, 거실이다 하며 장식장에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이 과연 잘 된 설계일까?

그래도 옛날에는(아니 종전법) 멋은 없지만, 앞뒤 발코니 최대한 빼내서는 준공검사 받기 무섭게 보란듯이 사방 가테기나 알루미늄 새시로 근사하게 메우고 나면 견뎌울 59.99%의 집이 토지 이용을 최대한 살린 80~90%이상의 멋진 집이 되고, 그 가테기 속에 보일러실, 창고, 세탁실 심하면 싱크대 갖춘 주방까지... 모든 부대시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일까? 그런데 또 그게 못 마땅해 하루 아침에 건축법을 짝 바꿔서 처마다, 통로다, 발코니다 구분하니 처음에는 좁은 대지에 집 안된다고 야단이더니 이젠 한 술 더 떠서 설계도면에는 처마랍시고 그럴 듯하게 기와 잇고, 아스팔트 싱글 입히고, 해놓고는 시공 할때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손가락 같은 각목 열기설기 엮어서 기와장 대충 이어놓고, 출입문을 합판으로 페인트 칠해 봉해 놓고, 절대로 통로나 발코니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시침 뚝 때놓고는 준공검사 나기 무섭게 짝 걷어 치우고는 한 술 더 떠 대리석 난간에 알루미늄 새시에 페어그라스까지 끼우고 나서 눈 감고 아웅하면 멋지게 처리하니 뭔가 제재하기 위해 고치고 또 고쳐진 법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며 새로운 공법(?)을 연구노력 하겠지.

언제부터인가 기와장 대여 전문 기술자까지 등장하여 오늘은 이 집 준공 검사용 기와장 이어놓고 감리자에게 준공검사 빨리 해 달라고 졸라대면 그래도 감리 잘못된 책임일랑 면해 보자고 카메라 척 메고나가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증거 확보한 후 되돌아 서기가 무섭게 기와 전문업자 처마에 설치된 기와장 달랑 걷어내어 다음집 그 다음집에 똑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준공검사 하고 또 걷어 치우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불법, 위법 건축물을 태연스럽게 양산하고 있으니, 이런 법이 과연 잘된 법일까? 어떨 때는 열기설기 이은 기와장이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아 건축주, 시공자에게 기와 몇 장 가지고 사업 한 번 잘 한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 그까짓 기와 몇 장 몇 푼합니까, 인건비가 비싸 그래도 남는 것 없나.

언젠가 단독 주택 내부에 반드시 실내 계단이 있어야 한다고 45도 경사진 사다리 같은 계단 만들어 이 집 저

집 아무 곳에나 걸쳐두고 준공검사하던 때가 생각나니 우리네 건축법은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일까, 실내계단 대여업자나 기와장 대여업자, 건축주, 시공자에게 더 이상 우롱당하는 설계 감리를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진정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건축상담 방송을 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 건축관계 상담을 방송국 아닌 사무실로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건축상담이라는 것이 새 집 짓기 위한 상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진정서 비슷한 내용이라 조금만 이해하고 참아주면 별 일 아닌데 자기 앞집에 새 집을 지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큰 일이나 날 것 같아 그저 무슨 약점이 없나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를때까지 끈덕지게 주시하다 순전히 자기만의 판단으로 큰 위반 건수하나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고는 그 날부터 건축상담이랍시고 전화통에 대고 자기만의 피해자인양 앞집, 뒷집 온갖 스트레스 다 풀려고하니 성질대로라면 당장 호통쳐서 전화를 끊고 싶지만 그래도 꼭 참고 나긋나긋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꾸하다 보면 끝이 없다. 자기가 집지으면 이웃에서 그 만한일 못참고 별나게 야단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더니...

요즘은 이웃에 새 집 지으면 배만 아픈게 아니고 오장육부 다 뒤틀려 아픈 모양이니 우리네 주거 문화가 왜 이렇게 꺼꾸로만 가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조금만 참아주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설령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같이 걱정해 주고 양보하고 또 의논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수만 생기면 대변에 청와대부터 운운하며 온 사방 여러 수십 군데 진정서를 내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유리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라도 했으면 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에서 탈피 할 수는 없을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 하면서 내 집 짓는 정성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정말 맛있는 작품다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